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6.70원 하락한 1,207.60원에 마감
------	------------------------------

18일 환율은 전일대비 6.70원 하락한 1,207.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30원 하락한 1,212.00원에 개장했다. 글로벌 리스크온 분위기에 하락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네고 물량 유입에 1,210원대를 하향 돌파하며 1,206.50원까지 저점을 낮추었다. 이후 외국인의 역송금 물량과 결제 수요 유입에 낙폭을 모두 회수하고 점심시간 경 상승 전환하였으나 재차 하락세를 보였고 장 후반 코스피와 위안화 강세에 연동으로 속락하며 전일대비 6.70원 하락한 1,207.60원에 마감하였다. 장중 변동 폭은 10.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15.91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12.00	1217.30	1206.50	1207.60	1211.1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22.83	1024.97	1010.88	1013.00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46.81	1348.77	1328.37	1334.30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7	0.43	-0.64	-5.31
	결제환율(수입)	0.45	1.18	0.37	-3.37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매파적 연준 및 유가 상승에 달러화 강세...1,210원 중심 등락 예상
-------	--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5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07.60원) 대비 4.00원 상승한 1,212.10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국제유가 상승 및 매파적 연준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준비제도(Fed) 주요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우크라이나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올해 금리를 3% 이상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역시 50bp 이상의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연

준의 매파적인 신호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협상이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자 국제 유가 또한 다시 100달러 선 위로 올라서며 달러화 강세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금일 환율은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달러-원 환율의 급락세에 일조한 수출 네고 물량 유입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07.50 ~ 1216.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020.83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00원 ↑
	■ 美 다우지수 : 34754.93, +274.17p(+0.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6.2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974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